



인도네시아

AI 위험지대?

인도네시아 보건성 당국자는 지난달 자카르타 교외에 사는 3세의 여아가 AI에 감염되었었다고 밝혔으며, WHO의 관련시설에서도 감염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AI에 의한 사망자는 41명으로 현재까지 세계 1위인 베트남(42명)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서는 AI로 인한 피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의 빠른 증가로 인해 정부대책의 느장 대응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사히신문).

인도

SKM사 2006년도 자금을 60%로

인도 최대 난가공 회사인 SKM사 현재 일일 120만개 처리량을 2008년까지 150만개로 증가시켜 연간 4천3백톤의 난분을 가공해 23개국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리하란 국장이 전했다.

SKM사는 120만수의 산란계 농장 설립에 투자해 2007년말까지 자국내 계란시장의 60%를 목표로 진행중에 있다. 또한 제빵·식품산업에 이용되는 혼합생산품을 출시해 러시아 등 해외시장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다.

SKM사는 2002년에 ISO9001과 HACCP인증을 받았으며 134명의 직원과 19명의 경영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간 3천5백톤의 난분을 처리하는 공장이 2007년 완료되는 시점까지 4천3백톤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FEED&LIVESTOCK).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산 가금류 수입키로

싱가포르 농산물검역당국은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가금류와 가금가공품에 대해서 6월 30일(금)자로 Selangor시와 Perak시의 수입

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이번 조치로 Perak시의 37개 오리농장과 Selangor시의 5개 육계농장과 1개 산란계 농장은 수출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수입중단이 되기 이전에 싱가포르의 가금산물시장 소비량은 Selangor시와 Perak시가 각각 계란시장 3%, 오리시장 80%를 점유하고 있었다(AAG).

말레이시아

Aron사 중국산 식용육 수입

말레이시아 민영기업인 Aron Sdn Bhd사는 중국산 식용육을 지역마켓수와 대형마켓에 공급하려고 한다. Aron사 브랜드로 판매될 이번 프리미엄 육은 6월까지 판매될 예정이며 호주나 뉴질랜드산보다 15~20% 저렴한 가격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 지역내 수요물량중 90%가 인도에서 들어오고 있다. Aron사는 매달 쇠고기와 양고기 160개 컨테이너물량을 수입하거나 또는 25톤정도를 각각 수입할 예정이며 매월 미화 4백30만달러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AAG).

일본

중형부화기 신 발매

일본 (유)미네키시마츠타혼제작소는 지금까지의 부화기의 약 4배 능력(입란수 48,384개)인 마츠타혼 신형 부화기 'TM-480형 셋터'를 개발하고 금년 8월부터 발매한



다.

초생추의 품질을 고집해온 국산 부화기 메이커로서 70년의 실적을 가진 미네키시마츠타혼제작소의 부화기는 120형(입란수 12,096개)이 최대 능력이었다. 유저인 부화장에서부터 양계장의 규모나 계군 로트의 대형화에 맞춘 대형 부화기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 지금까지의 부화기의 기능을 살리면서 보다 위생적인 양질의 초생추를 생산하는 중형 부화기를 개발해 후쿠오카현 야메시의 (주)큐슈부란에 전용기를 설치하고 시험입란을 해왔다. 시험입란 결과에 대해 큐슈부란의 하시모토 히로와 부란계장으로부터 “초생추의 질 등은 지금까지와 손색이 없고 양호한 상태”라는 보고를 받고 8월부터 자신을 가지고 발매에 들어가기로 하였다(鷄鳴新聞).

이바라키현- AI 종식 선언

일본 이바라키현은 6월 23일 현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종식되었다고 선언했다. 이바라키현에서는 작년 6월말부터 현내 40채란계농장이 차례로 약독타입(H5N2)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현내에서 사육되고 있던 채란계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약 568만수가 살처분 되었다.

이바라키현은 AI방역대책으로 4월부터 매월 현내의 40농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검사를 실시해 4월과 5월의 검사(바이러스 분리와 항체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면서 AI 종식을 선언하였다. 또 현에서는 (사)이바라키현 축산협회 등이 홍보지나 현내지 등에 이바라키현산 계란이나 계육의 소비확대를 위한 PR활동을 실시했다.(鷄鳴新聞)